

지역 매아리

부안군보건소·보건지소
독감 예방접종 본격 시작

부안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는 내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본격 시작한다. 독감 무료 접종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5세~만 12세 이하 어린이 기초생활수급자, 임신부, 다문화가족,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다.

독감 유료접종대상은 만 13세이상부터 만 64세 이하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접종 비용은 7,000원이다.

올해는 태아 건강 보호 및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보호를 위해 임신부까지 무료로 독감접종을 확대 실시 한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독감이 유행하기 전인 10월~11월에 인플루엔자(독감)를 접종하도록 권장하며, 특히 "고령자와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는 합병증으로 인한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세계문화어울림축제 성료

고창군 다문화가족과 군민의 화합의 장인 '제15회 고창 세계문화어울림축제'가 지난 19일 고창 모양성 앞 특설무대에서 정토진 고창부군수, 조규철 고창군의회군의회장 및 의원,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 다문화가족과 군민 등 1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김승찬 군 등 7명의 다문화자녀는 무대에 올라 어머니나 언어로 개회선언을 해 기념식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유공자 표창에는 다년간 다문화가족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로 아베히로미(고창읍)씨와 소비자교육중앙회(회장 이영신)가 고창군수 표창을, 다문화가족협의회 박종현(해리면)씨가 국회의원 표창을 받았다.

축제에선 '캄보디아의 알살라 춤' 등 6개국 문화체험과 '베트남 참쌀밥', '필리핀 잡채' 등 7개국 음식체험, 중국의 전통혼례 재현 등 다채로운 공연무대가 꾸며졌다.

18개 부스에서 다양한 무료체험이 진행되어 남녀노소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이 됐다.

고창군다문화센터장 대원삼님은 "앞으로 너와 나, 국가와 인종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마음껏 웃고 즐기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정토진 고창군 부군수는 "군은 현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사업과 고창나들이 사업, 대학학비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재능 나눔으로 행복 만든다

정읍시, 지역주민과 하나되는 '농촌 재능나눔 축제' 성황

정읍시가 지난 18일 전북과학대학교와 함께 준비한 '농촌 재능나눔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축제는 1% 재능 나눔으로 101% 행복마을 만들기 슬로건을 걸고 태인면에 소재한 피향정 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문화센터에는 유진섭 시장·황인창 총장·이남석 면장을 비롯한 과학대 재학생·교직원 봉사대·주민 등 400여 명이 찾아 축제를 즐겼다. 먼저 과학대 방송연예미디어과 이만세 교수의 재치 있는 사회와 정

읍 시합악단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과학대 간호학과 등 11개 학과의 재학생은 ▲만성질환 관리 교육 ▲구강검사 ▲시력검사 ▲근용 안경증정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미용 봉사 ▲다문화음식 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재능 나눔 활동을 펼쳤다.

특히, 방송연예미디어과의 학생들이 행복사진 촬영 등 이색 프로그램이 주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농촌 재

능 나눔을 더욱 확대해 우리 농촌을 미소짓게 만들고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나눔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창 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와 더불어 재능 나눔의 문화가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재능나눔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자체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행사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추가 지원

부안군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을 재공고하여 추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물량은 3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접수 받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하고, 차량이 같은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폐차하고,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공립시설 직영 차량 및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LPG 전환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부안군 홈페이지 참고)를 작성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부안군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지난 16일부터 3일간 서울지역 초등학교 57명을 초청해 정읍 역사·문화 체험활동을 가졌다.

정읍시, 서울 초등학교 초청해 역사·문화 체험 가저

정읍시가 지난 16일부터 3일간 서울지역 초등학교 57명을 초청해 정읍 역사·문화 체험활동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지난 2014년 정읍시와 서울특별시 교류 협정 체결 이후 매년 두 번씩 정읍과 서울을 번갈아가며 이루어지는 청소년 교류 활동의 일환이다.

특히, 2019~20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도시 청소년에게 농촌의 역사·문화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해 지역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정읍을 방문한 학생들은 먼저 전국 최대 규모의 구절초 명소 '구절초 테마공원'을 찾았다.

공원엔 아름다운 구절초를 배경으로 한 '종경사지 찍기 미션'을 하며 구절초를 마음껏 즐겼다.

이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태산 선비문화의 중심 무성서원을 찾아 유교 정신과 고운 최치원 선생의 공적을 가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저녁시간에는 전통 호신술 태권을 배우며 신체를 단련했다.

둘째 날에는 내장산의 아름다운 풍

경 감상을 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웠다. 더불어 단풍나무원·오곡강정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정읍의 역사와 문화에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동화농민혁명 유적지 탐방에 나서 혁명의 시작과 전개 과정 등 설명을 들었다. 이번 체험에 참가한 서울 신곡초의 학생은 "정읍은 가는 곳마다 예뻐 가족과 꼭 한번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날에는 우리 시 중학생 60명이 서울을 방문해 서대형무소·광화문·역사박물관 등 서울 명소를 탐방하며 문화체험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한민국 판소리의 성지로 우뚝

고창 판소리전수관, 차세대 소리꾼 양성 요람 자리매김

고창군 판소리전수관이 판소리 성지 고창을 이끌 차세대 소리꾼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조선포초 여류명창인 진채선의 뒤를 잇는 선행들의 열정 넘치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고창군 동리국악당에 따르면 최근 판소리전수관 교육생들이 잇따라 전국 판소리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며 소리의 고장을 빛내고 있다.

김현지(13·고창초6)양은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서봉 판소리·민요 대제전에 참가해 초등부 대상을 거머쥐었다. 김 양은 흥부가 매를 대신 맞으면 주는 열전 다섯 냥을 받고 좋아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흥부가 중 저 아전'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김양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제3회 입실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도 초등부 최우수상을 타면서 '초등부 판소리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여기에 중등부에 출전한 정은진(14·고창여중)양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 양은 본선에서 흥부가 최대의 하이라이프인 '둘레 박 타는 대목'을 열창해 심사위원과 관객들



을 매료 시켰다.

고창 판소리전수관은 상설 국악교실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2002년 12월 동리국악당 뒤편에 마련했다. 현재 판소리반, 가야금반, 무용반, 대금반, 농악반, 고법반, 민요반 등에서 예술인의 꿈을 키우고 있다.

고창군 동리국악당 관계자는 "판소리를 접대성한 동리 신재호 선생과 진채선 등 고창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판소리의 성지"라며 "전수관을 중심으로 고창소리의 명맥을 계승·발전시킬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쌍화차 마시며 정읍 매력에 '퐁당'

정읍시, 도내 문화부 기자 초청 구절초 테마공원 등 탐방투어 실시

정읍시는 지난 18일 정읍시만의 독창적인 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 등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집중홍보하기 위한 탐방투어를 진행했다.

이번에 진행된 탐방투어에는 전북 도내 문화부 기자 7명이 참가했다.

특히, 전북도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부 기자들이 정읍의 관광명소를 직접 견학하고 체험해 각종 매체에 홍보함으로써 정읍만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날 참가자들은 구절초 꽃 축제가 한창인 구절초 테마공원을 방문했다.

구절초가 만개해 꽃향기가 가득한 길을 거닐며 가을의 낭만과 서정을 만끽했다. 이어 드라마 '녹두꽃'을 촬영했던 김평관 고택을 체험한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을 찾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정읍의 맛 전설의 쌍화차 거리도 찾았다. 지황을 비롯해 정읍에서 생산된 20여 가지 특산물 약재를 달여 낸 쌍화차를 마시며 차담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가을맞이 갈아입은 정읍사공원을 방문했다.

내장산의 아름답고 붉은 단풍과 함께 분홍빛 핑크로리가 만개한 공원을 산책한 후 최고 품질 한우로서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단풍미인한우를 맛보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문화와 먹거리, 관광자원이 풍부한 정읍에 오신걸 환영한다"며 "정읍의 문화자원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껏 솔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